

글
본 논문 발표자

강지남_서울대 국제이주와포용사회센터 커뮤니케이션 오피서
이토 팽_캐나다 토론토대 사회학·공공정책학과 교수
서주연_영국 런던UCL 생활시간연구소CTUR 연구원
전지원_서울대 국제이주와포용사회센터 책임연구원
엘리자베스 킹_미국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김현미_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한국여성학회장
최서리_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허오영숙_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상임대표
주은희

사진
디자인

케이트 스몰, 최정미



2022 국제 돌봄 컨퍼런스 <초저출생·고령화 사회와 돌봄경제: 젠더, 국제이주, 개발> 리뷰 ②

이주돌봄노동자 확보 위한 글로벌 경쟁 시대 온다

‘저렴한 필리핀 이모’ 고집하면 한국은 必敗...좋은 일자리와 체계적 관리 시스템 갖추려는 노력 시급

본 센터는 11월 16~17일 국제 돌봄 컨퍼런스 <초저출생·고령화 사회와 돌봄경제: 젠더, 국제이주, 개발>을 주최했습니다. 서울대 관악캠퍼스에 국내외 우수한 전문가들을 초청해 젠더, 국제이주, 개발의 관점에서 돌봄경제를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습니다. 특히 17일 컨퍼런스의 두번째 세션 ‘한국 사회 돌봄 위기와 이주돌봄노동’에서는 고령화로 인한 돌봄 위기와 이주돌봄노동 현실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돌봄사회 구축을 위해 글로벌 이주돌봄노동을 어떤 관점에서 인식하고 어떻게 체계화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바빠 돌아가는 ‘글로벌 돌봄 공급망’

지구촌은 매우 빠른 속도로 나이 들고 있습니다. 유엔의 인구 변화 전망에 따르면 전 세계 60세 이상 인구는 2050년 21억 명으로 증가합니다. 앞으로 28년 후 60세 이상 인구가 2017년 대비 두 배 이상의 규모로 불어나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80세 이상 인구 증가 속도 또한 매우 빠르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기간 80세 이상 인구는 3배 늘어나 4억2500만 명에 이르게 됩니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또 부모가 자녀의 양육과 교육 등에 많은 투자를 하는 ‘집중 모성(Intensive Mothering)’이 한국과 북미, 유럽 등에서 새로운 사회 현상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으로 돌봄 수요는 증가하는데 돌봄 공급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미래 지구촌은 심각한 수준으로 돌봄노동 공급 부족에 직면할 것이 자명합니다. 현재 많은 사회에서 돌봄노동은 강도 높은 노동과 열악한 근무 여건, 저임금, 희박한 경력 개발 가능성 등으로 구성된 질 낮은 일자리입니다. 때문에 선진국을 중심으로 각 국가는 외국인 이주노동자에게 돌봄노동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OECD에 따르면 OECD 회원국 재가 돌봄노동자(home-based caregiver)의 29%가 외국인 이주노동자라고 합니다. 이탈리아에선 89%, 그리스에선 75%, 스페인에선 67%의 재가 돌봄노동자가 외국인 이주노동자로 집계됩니다. 1

1 이상의 내용은 11월 17일(목) 세션2 ‘한국 사회 돌봄 위기와 이주돌봄노동’에서 이토 팽의 기조 발표 ‘초국적 이주돌봄노동자에 대한 사회경제적 접근’에서 발췌

선진국의 돌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주노동자가 남반구에서 북반구로 이동해 돌봄노동에 종사하는 글로벌 돌봄 체인(Global Care Chain)은 이미 형성돼 있고, 성별이 편중돼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전세계 이주노동자 중 여성은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데(44.3%), 이주가사노동자(migrant domestic worker) 10명 중 7명 이상(73.4%)이 여성입니다. 돌봄노동자가 여성으로 과잉 대표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들 이주돌봄노동자가 수혜국의 경제에 기여하는 바는 적지 않습니다. 이주돌봄노동자는 홍콩에서 국내총생산(GDP)의 3.6%를 담당합니다. 영국에서는 이주노동자가 하루 동안 일을 중단하면 GDP의 4%가 사라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²



서주연 영국 런던UCL 생활시간연구소CTUR 연구원



전지원 서울대 국제이주와포용사회센터 책임연구원

² 이상의 내용은 11월 17일(목) 세션2 '한국 사회 돌봄 위기와 이주돌봄노동'에서 서주연의 '이주돌봄노동의 경제적 의미: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에서 발췌

³ 11월17일(목) 세션2 '한국 사회의 돌봄 위기와 이주돌봄노동'에서 전지원의 '한국 가정 내 돌봄과 이주돌봄노동 수요:2022 한국의 아동·노인 돌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토 팅 캐나다 토론토대 사회학·공공정책학과 교수

한국 사회의 이주돌봄노동 수요 파악해보니 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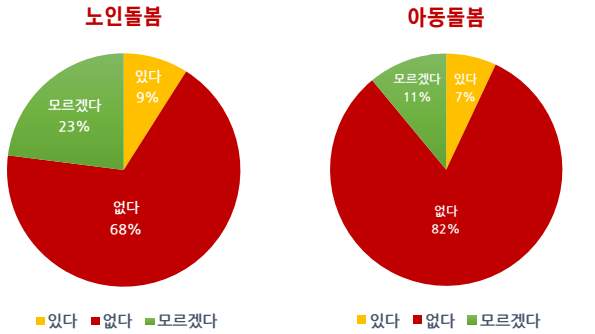
초저출생 및 초고령화로 '돌봄 절벽' 앞에 놓인 한국도 이주돌봄노동자 도입 확대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주로 중국동포가 간병인 등으로 돌봄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를 다른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허용하자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특히 초저출생 문제 해결의 한 수단으로 외국인 육아도우미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아젠다를 국무회의에 상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한국에서 육아 도우미를 고용하면 월 200만~300만 원이 들지만, 싱가포르에서는 월 38만~76만 원 수준"이라며 "외국인 육아도우미 도입은 경제적 이유나 도우미 공급 부족 때문에 고용을 꺼려왔던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돌봄서비스 수요자는 이주돌봄노동자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본 센터의 전지원 책임연구원은 이주돌봄노동에 대한 잠재적 수요를 파악하고자 '2022 한국의 돌봄 조사'에서 외국인 육아도우미 이용에 대한 의견을 수집했습니다. 이 조사는 한국갤럽을 통해 지난 7~11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 1000명, 혼자서 일상 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을 보살피는 가족 내 주돌봄자 1002명을 대상으로 대면으로 진행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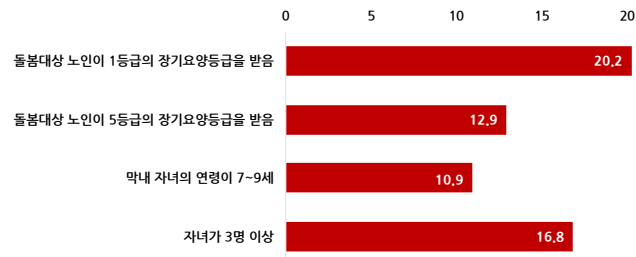
조사 결과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주돌봄비

(그림1) 이주돌봄노동 수요 조사의 주요 결과

이주돌보미 제도를 이용할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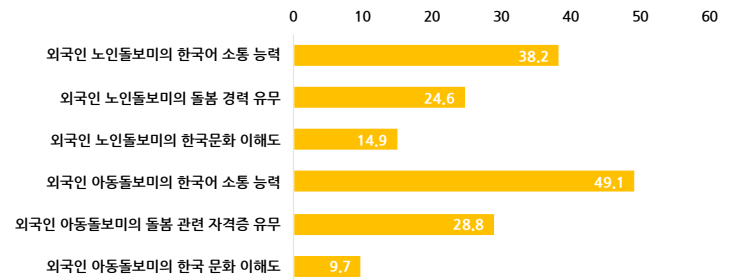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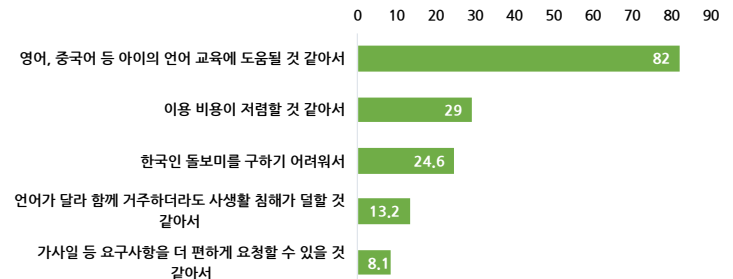
제도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노인돌봄의 경우 9%, 아동돌봄의 경우 7%로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림1 참조)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각각 23%, 11%에 달했습니다. 노인돌봄의 경우 장기요양등급 1등급과 5등급(치매 등)을 노인을 돌보는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이용 의향이 조금 높게 나타났습니다. 자녀돌봄의 경우 막내 자녀의 나이가 7~9세인 경우, 그리고 자녀 수가 3명 이상인 경우 이주돌보미 이용을 원한다는 응답이 조금 더 높았습니다. 사전 예상과 달리 영유아 돌봄 수요보다는, 초등학교 저학년 돌봄 공백 시간을 맡아 줄 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입니다.

이주돌보미 이용 결정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



단위: %

외국인 아동돌보미 이용 결정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



단위: %

이주돌보미 이용 결정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한국어 소통 능력'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돌봄 경력 유무'와 '한국 문화 이해도', 그리고 아동 돌봄의 경우 '돌봄 관련 자격증 유무'가 주요하게 꼽혔습니다. 아동 돌봄의 경우에는 이주돌보미 이용을 고려하는 이유를 물었는데, '영어, 중국어 등 아이의 언어 교육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란 응답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근무 형태는 입주보다 출퇴근에 대한 선호가 압도적으로 높았고(노인돌봄 88%, 아동돌봄 90%), 노인돌봄은 하루 평균 5.1시간, 아동돌봄은 3.4시간 이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불할 의사가 있는 비용 수준은 시간당 1만 원 가량으로 조사됐습니다(노인돌봄 7,823원, 아동돌봄 10,500원).

사실 응답자 대부분은 이주돌봄노동 이용을 고려하지 않거나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습니다. 그 주요한 이유는 '언어가 통하지 않을 것 같다', '다른 나라 사람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용 여부 의사와 관계 없이 전체 응답자가 인식하는 이주돌봄노동의 적정 비용은 한국 돌보미 임금과 출신 국가 임금의 중간 정도가 적절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노인돌봄 32.4%, 아동돌봄 38.3%).

“좋은 돌봄일자리 제공하는 국가만 선택받을 것”

이번 조사 결과에서는 몇 가지 함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외국인 ‘육아’도우미보다는 외국인 ‘노인돌봄’ 인력 확보와 적절한 시스템 마련이 보다 시급하다는 점입니다. 매우 급속한 고령화를 겪고 있는 한국에서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은 현재 17.5%에서 2040년 34.4%로 증가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지역사회에 거주하며 장기돌봄을 필요로 하는 한국 노인의 수가 2067년에 현재의 3배가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런데 간과해선 안 될 중요한 점은 외국인 돌봄 인력을 한국만 원하는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앞서 살펴봤듯 돌봄 인력에 대한 글로벌 수요는 매우 빠르게 팽창하고 있습니다. 또 돌봄인력 송출국이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자국민이 해외로 나가는 경우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일례로 필리핀 정부는 필리핀 엄마가 떠난 자리에 필리핀 아동이 돌봄 부재 상태로 남겨진다는 점을 심각한 사회 문제로 간주하고 국내 일자리 마련에 주력하며 돌보미 송출을 줄이는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돌봄 송출국 역시 곧 인구 고령화를 겪게 됩니다. 따라서 가까운 미래에 이주돌봄노동 인력 확보 자체가 쉽지 않을 수 있고, 경쟁력 있는 돌봄 인력은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국가를 골라 이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주돌봄노동자를 ‘저렴한 필리핀 이모’ 정도로 여겨서는 이주돌봄노동자에게 ‘매력적인 목적지’가 될 수 없습니다. 한국에 필요한 것은 이주돌봄인력 도입 문제에 관한 시각과 이를 다루는 사회적 방식의 전환입니다. 저출생, 아동돌봄 중심에서 노인돌봄 인력 확보를 중심으로, 저가 노동력보다는 좋은 돌봄을 제공하는 양질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엘리자베스 킹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위원

특히 지속가능한 양질의 돌봄 인력 수급 관점에서 어떤 인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주돌봄인력이 한국어 능력과 돌봄 역량을 갖추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에 오래 체류하게 하려면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인가 등을 고민해야 합니다. 또 출퇴근 근무 형태를 선호하는 수요를 고려해 기숙사 등 이주돌봄노동자의 주거 문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요양병원에 입소하는 것보다 집에서 노후를 보내는 것의 여러 긍정적 측면을 고려했을 때 향후 가정 내 노인돌봄인력 고용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도 있습니다. 또한 이주돌봄노동자의 원활한 적응과 문제 발생시 대응을 위한 절차 및 프로그램 개발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사람 중심’의 돌봄노동 생태계에 필요한 5R

돌봄노동을 둘러싼 글로벌 공급망에서 잊지 말아야 할 점은 돌봄이주노동자가 사물이 아닌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글로벌 돌봄이주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글로벌 사회가 마땅히 해야 할 과업이자 지속가능한 돌봄사회로 나아가는 주요한 해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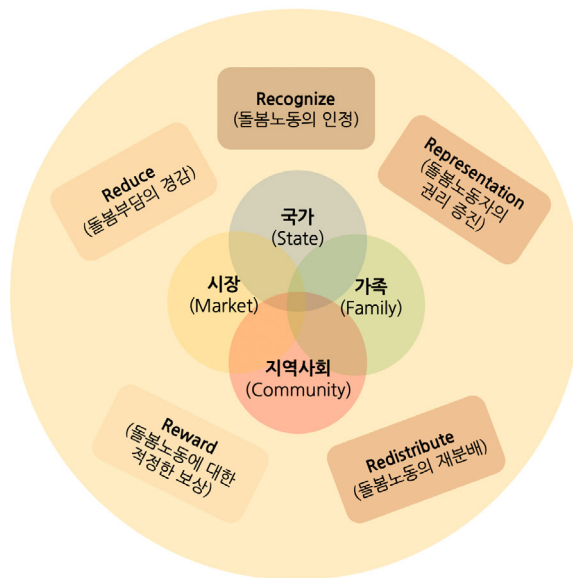
김현미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한국여성학회 회장, 최서리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상임대표(왼쪽부터)

이를 위해 이토 켈 캐나다 토론토대 교수는 5R을 제시합니다. Recognize(돌봄노동의 인정), Reduce(돌봄부담의 경감), Redistribute(돌봄노동의 재분배), Reward(돌봄노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 그리고 Representation(돌봄노동자의 권리 증진)입니다. (그림2 참조) 정부-시장-가족-지역사회로 구성된 돌봄의 다이아몬드에서 정부는 장기적 관점에서 세대 간 상호 보완되는 돌봄 정책을 만들고, 시장(기업)은 여성과 남성 직원 모두에게 돌봄 휴가를 제공함으로써 돌봄 책임을 재분배하고, 가족은 남녀 모두가 무급 돌봄 노동을 분담하고 아이들에게 돌봄과 돌봄노동의 가치를 가르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는 ‘이웃망’을 강화하고 돌봄노동자의 권리 증진과 보호에 앞장서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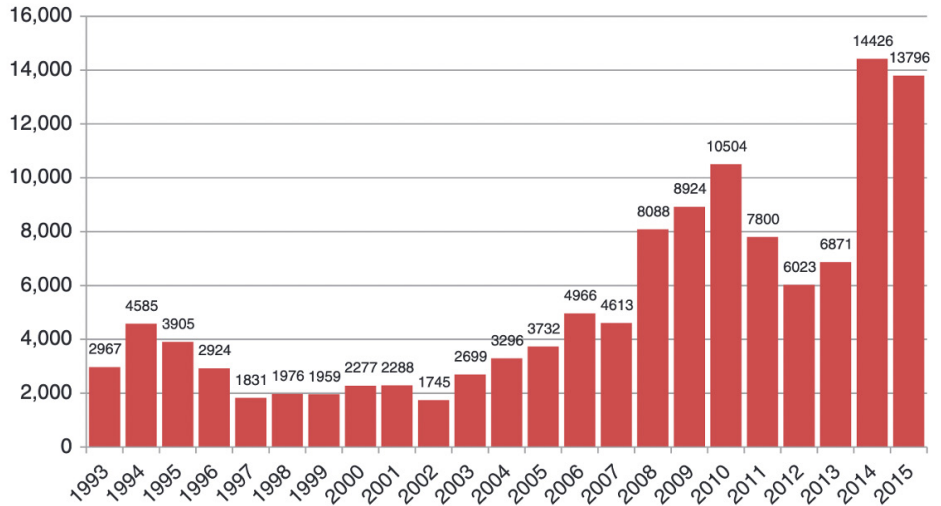
이주여성 관련 현장 활동가인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상임대표는 “‘동남아 이모님’은 정당한 임금과 적절한 노동 시간 등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초저임금만 상상하며 나온 얘기”

라고 일갈하며 “아시아 저개발 국가에 대한 차별이자 인종차별적 발상으로 이래서는 한국 사회의 돌봄의 질이 향상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김현미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는 “여성의 경제 참여와 돌봄 수요를 너무 기계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재생산을 위해 얼마나 많은 돌봄노동이 필요한지를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돌봄노동 재분배를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서리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은 학력, 소득, 한국어 수준 등을 점수화해 고숙련된 인력만 제한적으로 한국 정착을 허용한다”며 “지속가능한 돌봄인력 수급을 위해서는 돌봄인력의 기술(skill)을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엘리자베스 킹 미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이주돌봄노동 송출국과 수용국 간의 협정을 통한 ‘계약에 기반한 이주’를 주문했습니다. “국가 간 협정을 통해 이주돌봄노동자의 노동권과 지위를 보호함으로써 돌봄의 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림2〉 돌봄의 다이아몬드와 지속가능한 글로벌 돌봄 이주 시스템을 위한 5R



(그림3) 캐나다의 이주돌봄노동자 대상 영주권 발급 현황



단위: 명
자료: Immigration, Refugee and Citizenship Canada, 이도 펴

이주돌봄노동자에게 '매력적 목적지' 될 세밀한 설계에 나서야

돌봄의 수요와 공급 불일치는 많은 국가가 더 이상 피할 수도, 외면할 수도 없는 난제입니다. 양질의 이주돌봄노동 인력을 확보하려는 글로벌 경쟁은 이미 가시화됐고, 몇몇 국가는 이주돌봄노동자가 안심하고 자신의 커리어와 미래를 걸어볼 수 있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캐나다는 매년 10만 명이 넘는 이주돌봄노동자에게 영주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림3 참조)

이러한 글로벌 흐름을 고려할 때 한국은 하루 빨리 '필리핀 이모님은 저렴한데 왜 안 되나요' 수준의 담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돌봄노동자와 돌봄 대상자가 윈윈하며 양질의 돌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글로벌 이주돌봄인력에게 한국을 어떻게 하면 매력적인 목적지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세밀한 설계를 서둘러야 할 때입니다.

5
전지원, 위 발표

국제 돌봄 컨퍼런스 <초저출생·고령화 사회와 돌봄경제: 젠더, 국제이주, 개발>의 프로그램, 동영상, 자료 등은 [서울대 국제이주와포용사회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ctms.or.kr
ctms.snu@gmail.com
@ctmssnu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국제대학원 140동 307호

사전승인 없이 무단배포 또는 자료 수정 및 편집은 불가하며, 본문 내용 등 활용 시에는 반드시 '서울대학교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 (2022)' 등으로 출처를 표기해주세요.

